

대학교육기회의 확대와 대학진학행동: 충청북도를 사례로*

조 영 국**

요약 : 본 연구는 충청북도를 사례로 대학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특성과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서 나타나는 대학진학행동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지방에 있어서 대학교육기회확대가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다. 대학교육기회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충청북도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대졸 취업자의 직종 하향이동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학진학행동에서 충청북도를 이탈하여 보다 상위 중심지로 또는 핵심지역으로 이탈하려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를 단위로 하는 취학권이 약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주요어 : 대학교육기회, 지역노동시장, 하향취업, 대학진학행동, 지역격차

1. 서 론

사회발전 추세에 맞춰 한국의 대학교육기회는 괄목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로 사회 일반에서는 대학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계층간, 지역간 격차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오히려 대학은 학생수급을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고 과잉교육(over-education), 혹은 학력인플레이션(education inflation)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과잉교육 혹은 학력인플레이션이란 교육체제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대학졸업생을 산출해냄으로써 특정한 수준의 학교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거나, 교육을 통

해서 습득된 기능을 직무수행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실업 내지 반실업의 상태에 놓이거나, 요구되는 학력수준이 낮은 직종으로 하향취업이 확산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기회접근에 있어서 격차구조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학 분야의 학술연구들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장상수(2001)는 대학교육기회가 크게 늘어난 1980년대에 와서도 가족 배경과 출신 지역과 같은 개인의 귀속적 배경의 영향력이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또 가족배경, 학력성취 및 직업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기제를 밝히고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03-C00497)

**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자 한 김영화·김병관(1999)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배경과 학업성적, 학업성적과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직업성취간 각각의 상관관계는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교육기회의 확대가 점차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기능 측면도 있음을 밝히는 등 사회일반의 인식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과 교육체제간의 상응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이에 대해 좀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대학교육이 진정한 사회적 불평등 기제가 되려면 대졸학력이 직업획득과 직업지위 나아가 사회적 이동의 발판으로서 기능을 해야하는데, 노동시장의 분단,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발달, 고용관행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대학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당수의 대졸학력 소지자가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계열의 연구들의 기본 관점이다. 오히려 과잉교육이 이루어지면 학력의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에 대학교육기회의 확대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 계열의 연구들이 과잉교육, 학력인플레이가 일어나면, 학력효과, 즉 직업획득과 계층이동의 수단으로서 대학교육의 기능 자체가 소멸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잉교육이 나타나면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의 자질을 평가할 때 고졸, 대졸과 같이 교육연수를 기준하지 않고 졸업한 대학의 사회적 명망도, 전공, 학업성적 등 보다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본다. 이른바 노동시장에서 대학학력의 탈표준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이두휴, 1993). 이처럼 과잉교육 하에서조차 학력효과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여전히 발휘되고 대학교육에 대한 사적 수요도 형태를 달리할 뿐 결코 줄어들지 않

는다고 본다(장상수, 2001).

이와 같은 노동시장과 교육체제의 상응관계가 공간적으로 표출된 것이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이동기회에 있어서 중심-주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심-주변 구조는 대학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대학교육기회도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상당히 진척된 여러 국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Fassman and Meusbrger, 1997; Fielding, 1992; Savage, 1988; 川田力, 1992). 그리고 이처럼 고착화된 중심-주변 구조는 노동시장의 지역적 분단, 고용정보의 국지적 유포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공간성과 이 구조에 적응하려는 개인의 교육행동 및 취직행동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혹은 강화되면서 나타난 작용한 결과란 것이 입증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입시과열, 대학교육접근에 있어서 지방의 상대적 불리 등 교육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 내적인 문제인식과 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대학은 대학대로 수급위기를 맞고, 교육수요자는 학력가치의 절하로 어려움에 직면을 하였으며, 특히 지방에 있어서 인재유출, 지역격차는 오히려 심화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이는 노동시장과 교육체제의 상응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교육기회의 양적인 확대와 지역적 분산을 시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노동시장과 교육체제, 특히 노동시장, 학력효과, 교육수요 3자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해명을 시도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교육사회학이나 노동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지고 있지만(박세일, 1982; 1983; 이두휴, 1993 등), 특별히 지방의 인재유출, 지방대학의 위기, 고학력실업의 지역격차 등 심각한 지역문제에 부각되

는 만큼 공간적 맥락에서의 접근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 졸업 후 취업기회, 취업행동 측면에서 지역격차를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다(안영진, 2001).

이에 본 연구는 교육수준과 사회적 계층이동 기회의 중심-주변 격차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측면인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중심-주변 격차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그리고 대학진학행동 세 측면에 대한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서 대학진학행동이란 명시적으로는 진학하려는 대학의 소재지와 전공 선택으로 표출되는 행동양식을 지칭한다. 특히 진학대학의 여러 대안들 사이에서 대학 진학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미시적인 자료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 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북도를 사례로 하였다. 현재 이 문제는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으로 이원구조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밝혀진 내용을 다른 시도에 확대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먼저 청주와 충주에 소재한 세 고등학교로부터 입시결과에 대한 내부 자료 가운데 각각 문과·이과 각 2개 반씩 총 12개 학급의 입시결과 자료를 구하였다.¹⁾ 이 자료는 지원대학과 전공, 합격여부, 수능성적 등이 기록된 자료로 실제 진학대학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합격여부와 최종 진학대학에 관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전문대학 진학학생과 합격한 이후 재수를 선택한 학생을 포함하여 4년제 대학

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과 최종진학대학의 확인이 어려운 학생들을 제외한 총 354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이론적 논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교육행동

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수요는 장래 직업적 지위, 소득, 사회계층 등으로 보상을 기대하는 일종의 사적 투자행위이다. 직업적 지위, 소득, 사회계층은 노동시장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고등교육수요의 구조는 노동시장과의 상응관계 속에서 검토되어 왔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와 노동시장 내에서 학력효과, 학력에 대한 평가방식 등이 사회의 교육수요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 규명과 실증적 분석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로부터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학력효과간의 관계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교육수요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두 측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1) 노동시장의 구조와 학력효과

오늘 날 여러 사회에서 학력별로 직업적 지위, 승진사다리, 보수, 그러므로 사회계층 등이 차별화된 이른바 학력효과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학력효과가 있다는 것은 교육수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교육수요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학력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노동시장의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한 사회의 직업구조는 서로 다른 자질을 가진 노동력에 대한 수요 정도를 거시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다. 산업사회일수록 노동시장에서 학력의 효과가 잘 발휘되는 것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이 늘어나고 같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는 상대적으로 취업기회나 보수 등이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직업구조는 교육투자의 가치로 연결되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둘째 비교적 단계적으로 보면 같은 직업구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노동시장이 특정한 직업군 별로 입직문, 승진사다리가 구분되어 있으면서 상이한 직업군 쌍방간에 이동이 제약된 부분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학력효과도 달라진다. 특수한 직업적 자질을 갖춘 노동자로 구성된 전문직업적 부분노동시장은 직업적 자질 취득요건을 전제로 함으로써 진입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보편화된 부분노동시장은 기업 내부노동시장이다. 기업내부노동시장은 한 기업 내 관리직 노동자와 생산직 노동자간에 별도의 입직문과 승진사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규칙으로 외부노동시장으로부터의 진입과 이탈이 제약을 받는 부분노동시장이다. 전문직업적 부분노동시장은 대체로 특정한 교육배경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내부노동시장도 입직 단계에서 학력을 채용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한 사회의 노동시장이 여러 부분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고 부분노동시장끼리 취업자의 보수, 직업적 지위가 상이한 구조를 가질 때, 그리고 특정 부분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하는데 학력이 주요한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교육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

이다(장상수, 2001).

셋째 고용주의 고용관행도 학력효과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학력 혹은 교육수준과 직무능력과 상관관계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마다 요구되는 고용자의 자질이 다르고 따라서 공식화된 교육을 통해 기업특유의 자질을 획득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교육이 기업 혹은 직장 특유의 자질을 높여주는 효과는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노동력의 도덕적 자질 - 책임감, 성실성 -, 형식적 자질 - 판단능력, 기획, 조정능력 - 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정표, 1994). 그러므로 실제 고용현장에서는 학력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교육의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낮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고용관행에서 학력 기준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입직 단계에서 고용주들은 학력을 주요한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면 이윤배반적이지만 거기에는 학력 이외에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게 해주는 지표가 마땅치 않으며 비록 활용할 만한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비용, 선발비용이 매우 크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이재열, 1993). 특히 노동력의 수급 변동에 맞춰 학력기준을 상향 혹은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기업은 보다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선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선발 과정에 있어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학력은 직무능력의 정확한 잣대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선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관행은 교육체계와 직업체계간의 연계가 나타나게 하며, 동시에 교육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학력을 갖춘 구직자

의 공급과잉도 학력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날 경우 실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학력 소지자가 과거에 낮은 학력 소지자로 충원되는 직업, 직종에 취업하는 하향 취업이 늘어나는 등 소위 과잉교육, 학력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학력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나면 교육수요가 줄어 공급과잉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박세일, 1983). 이처럼 예상과 달리 교육수요가 줄지 않는 데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고용관행 때문이다.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으면 비록 학력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교육을 통한 기대수익 자체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육수요는 종전과 같이 높을 것이다. 학력을 선발기준으로 하는 고용관행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학력소지자의 공급이 늘어나면 출신지역, 전공, 성, 학위 종류 등 여러 가지 학력기준을 상향시킴으로써 고용주는 보다 선발된 인력을 충원하려 할 것이다. 공급과잉이 나타난다고 해서 곧바로 학력간 상대 임금율의 조정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고용주는 채용기준을 상향시키는 양적 조정(quantity adjustment)으로 대응하게 된다.²⁾ 이처럼 고학력자의 공급과잉이 이루어지더라도 학력의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점차 고등교육은 충분조건에서 필요조건으로 바뀌는 등 교육수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고용기회의 총량과 질적 구성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고 이것은 학력효과와 지역격차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된다. 기업체와 일자리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리고 이 공간적 불균등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이론적으로도 해명되어 왔다. 예를 들

면, 정보의 공간적 불균등 분포, 기업 조직 혹은 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정보 수요, 및 두 측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기능적 공간 분업 등으로 이어지는 설명 도식은 고용기회의 총량과 질적 구성의 지리적 불균등을 잘 설명해 준다(Fassman and Meusburger, 1997: 92-107). 또한 직종별로 고용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조직내, 그리고 공간적으로 분배되어 있느냐에 관한 기업의 공간조직 논의를 통해서도 고용기회의 지리적 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주변지역은 일상적 업무 수행을 하는 분공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결정을 비롯한 많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 통제를 받고 있다.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고용정보 역시 공간적 제약을 받고 그에 따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에 있는 구직자는 고용정보의 비대칭 정도가 다르게 된다. 이러한 고용결정의 외부통제, 정보의 비대칭성은 취업기회의 지리적 불균등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노동시장의 고용기회와 총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그만큼 학력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가능성이 적게 된다. 그러나 학력효과가 낮다고 해서 지역의 전체 교육수요가 적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지역 내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는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노동시장의 구조와 교육행동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학력효과가 발휘되는 정도와 양상이 어떻게 표출되며 그 결과 교육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언급되는 교육수요란 수량적 증감 혹은 많고 적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공과 대학의 선택, 그리고 개인의 귀속적 배경에 따른 전공과 대학 선택의 패턴, 교육수요 목적지의 분포 등 수요자의 구체적 행태, 교육행동까지 포함된 개념

이다. 만일 교육행동이 학력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고 이 학력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의 산물이라면, 결국 교육행동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교육지리학의 핵심 과제가 사회경제적 공간구조와 교육행동의 공간구조 사이의 정합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다는 언급도 바로 이를 전제로 한다(モイスブルガー, 1990).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공간구조와 교육행동의 공간구조간의 관계가 입증되어왔다.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교육수준이 중심-주변지역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교육수준의 중심-주변 격차는 대학교육기회의 양적인 팽창과 지역적 분산이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도 대학교육기회가 한정된 과거의 지역차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흔히 고용기회의 지역적 집중과 이로 인한 대졸자의 취업이동 측면에서 교육수준의 지역차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川田力(1982; 1983)은 일본에 있어서 주민 교육수준의 중심-주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고등교육 진학률, 대학입학단계에서의 진학이동, 대학졸업 후 취직이동, 취업이후 주거이동 및 전직 이동 등 4단계에 걸친 중심-주변 격차 혹은 이동의 누적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진학이동이 취직이동이나 전직 이동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특히 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동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은 진학희망자가 대학선택 단계에서부터 사회경제적 공간구조 또는 노동시장의 지역적 구조를 염두에 둔 교육행동을 보여줌을 시사한다. 이런 진학대학의 선택단계에서 중심지향성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노국향, 1997; 이두휴, 1993; 임정덕·장영재, 1997; 한만길, 1993).

그렇다면 대학진학 행동에서 중심지향성이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가? 교육체제와 노동시장 각각의 구조적 특성과 이에 연유한 교육체제와 고용체제의 연계성은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된다. 한 국가에서 학교체제가 아주 선별적이고 고용주들이 대학과 같은 교육체제의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은 소수의 고숙력자들만을 졸업시키고 중간수준은 자질 있는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기대해도 좋을 때, 교육체제와 고용체제 사이의 연계는 아주 긴밀해진다. 즉 학력효과가 잘 발휘된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대졸자 사이에 어떤 계층적인 층화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교육체제와 고용체제 사이의 연계성은 느슨해진다(Fassman and Meusburger, 1997: 154-5). 후자의 경우처럼 교육체제의 선별작용이 상실될 경우, 학력에 대한 평가에 새로운 척도가 등장하게 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대졸 취업희망자가 과잉 공급될 때 고용주는 새로운 학력평가 척도 기준의 적용을 선호하게 된다.

교육체제와 고용체제의 연계성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척도가 고려될 때, 이는 대학진학자의 대학 선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첫째 대학의 사회적 명망도를 고려한 대학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공간적 근접성과 대학선택 사이의 관계는 매우 약하게 될 것이다. Lowe and Viterio (1989)가 미국 명문 사립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생 출신지 분포 - 대학 층의 입장에서 보면 취학권 - 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동부 명문 사립대학의 경우 거의 전국적 취학권을 가지는 데 비해 일반 대학의 경우 지역적 혹은 국지적 취학권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직업적 특정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전공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대학 진학 시 특정한 직업으로 진입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는 전공, 혹은 적어도 특정 직업과 대응하는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는 전공을 선호하게 된다. 이 두 번째 측면의 공간적 표출은 지역교육체계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직업 특정성이 높은 전공이 지역 내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전공선택은 그대로 진학지역 선택으로도 연결된다.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고용정보도 전과와 유통에 있어서 분명한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입사시험과 같이 표준화된 채용방식 보다는 추천과 인터뷰와 같이 사적 접촉에 의존하는 채용방식이 선호될 때 고용정보는 매우 국지적으로 생산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³⁾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때 개인의 접촉 잠재력은 취업기회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개인이 처한 사회적 공간의 성격 - 접촉 잠재력이 높은 곳에 있느냐 여부 - 은 취업 기회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의 한 소도시에 대한 사례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는 지방 소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학력소지자 중에 취락체계상의 어떤 위치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취업지 분포도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소재지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 학생은 첫 취업지가 고등학교 출신지역인 비율이 다른 상위 취락계층에 소재한 대학 진학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Meusburger and Schmidt, 1996; Fassman and Meusburger, 1997: 244-5에서 재인용). 이것은 비단 취업지 분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취업의 내용까지 고려된다면 그 격차의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전적으로 취락체계별로 취업 기회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진학이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되고 정보접촉 잠재력이 높아졌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⁴⁾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의 지역차는 사회경제적 공간구조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취직이동, 전직이동 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교육행동도 이 지역구조를 반영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결과라고 규명되었다. 교육수요자의 교육행동에 있어서 중심-주변 구조는 양 측면 사이에 평면적이고 우연한 상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개입되어 있다. 한 사회에서의 학력 효과는 학력이 소득, 직업획득 및 사회계층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지칭하는데 특히 특정 학력이 첫 직업획득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 사회계층과 같은 다른 교육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력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학력이 다른 학력과 차별된 직업으로의 이행이 보장받는다면, 다시 말해 교육체계와 직업체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학력효과가 높다고 하겠다. 이 학력효과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특정 학력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의 분단 여부 그리고 고용관행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학력효과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지역 노동시장에 따라 학력효과도 상이하게 발현될 것이다. 또한 공간 특유의 접촉 잠재력은 개인이 학력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력 효과의 지역 차이를 낳게 하는 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공간특유의 접촉 잠재력이 노동시장과 완전히 무관한 것일 수는 없지만 고유한 속성상 분리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학력효과가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면 교육수요자의 교육행동, 구체적으로 말해서 진학결정, 진학이동, 전공선택 등은 학력효과의 지역적 전개양상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경험연구에서 확인되는 교육행동의 지역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3. 충청북도의 대학교육기회 확대과정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1) 대학교육기회의 확대과정

충청북도에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은 1946년에 설립된 청주상과대학(현 청주대학교)이다. 이 청주상과대학은 상과 단일학과에 입학정원 60명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청주농과대학(현재의 충북대학교)이 1953년 초급대학에서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하였고, 1970년 청주여자대학(현재의 서원대학교)이 설립되었다. 이후 1980년까지 3개 대학은 여러 전공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1980년 현재 3개 대학 116개 학과, 입학정원 약 5,000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대학교육기회는 충청북도 내 당시 고등학교 졸업생의 28.5%에 해당하였다. 물론 진학희망자는 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숫자에 비해 훨씬 적었지만, 지역 내 대학교육수요를 훨씬 못 미치는 대학교육기회를 공급하였다. 이후 1981년에 건국대학교 충주분교, 1985년에 한국교원대학교가 새로 설립되었고 1981년에 청주교육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어, 지역 내 대학교육기회는 크게 확대되었다. 1985년 현재 입학정원은 약 9,000명이었고 같은 해 고등학교 졸업생의 34.5%를 흡수할 수 있는 대학교육기회가 공급되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만 해도 건국대학교 충주분교를 제외하면 대학교육기회는 청주에 편중되어 있었다. 본격적으로 대학교육기관이 충북지역 전역으로 분산된 것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다. 1991년 제천에 세명대학교, 1992년 충주산업대학(현재의 충주대학교), 음성군에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극동대학교와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설립되어 현재 충청북도에 주요 중심도시에 모두 4년제 대학이 입지하게 되었다. 현재 총 약 500여 개의 학과에 입학정원이 14,771명에 달할 정도로 양적인 급팽창을 하여 2002년 기준 도내 4년제 대학입학정원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의 약 70%에 육박하였다. 이와 같은 충청북도 내 대학교육기회의 급속한 팽창은 대학정원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에 대한 4년제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정부정책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이혜영, 1993). 특별히 충청북도는 여전히 대학교육기회의 과소 공급 상태에 있는 수도권에 비해 대학교육수요를 흡수할 의도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충청북도 내 4년제 대학교육기관과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4년제 입학정원의 비율은 전국에 비해 훨씬 높아 바야흐로 대학교육기회의 과잉공급을 우려할 상황에 이르렀다.⁵⁾ 이것은 대졸학력에 대한 선별성을 낮추고 노동시장, 특히 협소한 노동시장이 대졸 구직자를 감당할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구직자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른바 과잉교육, 학력인플레이 현상이 본격화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충청북도 내 대학교육기회가 팽창하면서 교육내용도 매우 다양해졌다. 1970년 이전에 상경학, 농학, 사범계열 등 일부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이 제공되었으나, 차츰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 예체능계열의 학과가 신설되었고 특

히 1980년대 이후 의학, 한의학, 예체능계열의 학과 등이 신설, 증원되면서 2002년 현재 약 500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전공분야의 교육기회가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전공분야의 결여에 따른 지역내 대학교육기회의 제약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학교육기회의 내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육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점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면, 도내 대학교육기관이 배출하는 인력의 내용이 지역노동시장의 대졸인력 수요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불일치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내 대학졸업자의 상당수가 낮은 학력소지자로 충원되는 직업에 취업을 하는 즉 학력효과를 포기하거나, 혹은 학력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 대졸자 취업기회의 변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청북도의 대학교육기회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급속한 팽창을 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년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초에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10,000명에 육박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10,000명을 훨씬 넘어 최근에는 15,00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학업기간과 중간의 군입대기간 등을 감안하면 1980년대 대학 진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시기는 1990년대 들어와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1에 나타난 충청북도 대졸취업자 변화에서 1990년은 아직 대학교육기회의 팽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인 반면에 1995년과 2000년은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990년대 충청북도는 일자리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괄목할 만한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졌다.⁶⁾ 일자리 증가는 농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증가율 기준으로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절대적 숫자 면에서는 전문기술직과 생산직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사무직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눈에 띈다.

한편 같은 기간 충청북도의 대졸취업자 숫자는 전체 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1990년대 전반기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급속하였던 점도 일치한다. 그러나 직종별 증가 패턴은 전체 노동시장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노동시장 전체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던 서비스·판매직과 생산직 분야에 대졸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무직과 농업 관련 분야의 경우도 대졸취업자의 증가율이 전체 노동시장에 비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 충청북도에 있어서 대졸취업기회의 증가가 실제 충청북도 대졸자에게 취업기회로 제공된 것은 훨씬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로 대졸 학력자에 의해 충원되어 왔던 행정직, 전문직 가운데 대략 17%에서 20%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된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취업자수 증가가 말해 주듯이 1990년대에 들어와 충청북도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이 발전과정에서 창출된 상위직종 가운데 외부에서 유입된 인력에 의해 충원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졌다는 사실은 충청북도가 공간 분업적 맥락에서 주변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대변해준다. 대체로 행정관리직이나 전문직은 조직 내 승진사다리를 거치는데 이 조직 내 지위 이동에 관한 결정이 주로 핵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지역과 연고가 없는 외부

표 1. 충청북도 직업별 취업자 변화(1990-2000년)

(단위 : 천명, %)

	1990년	1995년	2000년	1990-95년 증감율	1995-2000년 증감율	1990-2000년 증감율
전 체						
행정관리직	5.2	13.1	24.2	150.2	84.4	361.4
전문기술직	32.5	74.5	75.4	129.0	1.3	131.9
사무직	51.1	46.4	66.1	-9.2	42.6	29.4
서비스, 판매직	93.9	100.9	122.2	7.4	21.1	30.1
농업, 임업	206.2	171.3	145.5	-16.9	-15.1	-29.4
생산직	130.4	171.5	172.4	31.5	0.5	32.2
기 타	1.4	3.5	3.8	152.4	10.3	178.5
합 계	520.8	581.2	609.6	11.6	4.9	17.1
대졸취업자						
행정관리직	1.8	5.2	8.3	192.3	60.9	370.3
전문기술직	19.2	33.2	31.1	73.3	-6.2	62.6
사무직	10.7	9.6	17.0	-20.7	77.2	58.3
서비스, 판매직	5.7	8.4	11.8	46.8	40.1	105.8
농업, 임업	1.9	2.1	2.7	10.2	29.5	42.7
생산직	3.3	7.0	7.5	110.8	6.7	125.1
기 타	0.2	1.5	1.2	915.2	-19.8	713.9
합 계	42.8	67.0	70.7	56.7	18.9	86.3

자료 :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인력에 의해 충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위직종의 외부 충원은 충청북도 대학졸업자에게 학력의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이다. 전남대학교 취업구조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처럼 충청북도 대졸자들은 취업을 위해 공간적 이동전략 혹은 하향 취업이라는 직업적 유연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안영진, 2001). 전자는 지역의 인적 잠재력 유출이라는 점에 지역발전에 부정적이지만 그나마 그 기회도 제약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상당수 충청북도 대졸자들은 협소한 지방노동시장에 대졸구직자의 과잉으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학력

표 2. 충청북도 총취업자 중 5년전 도외 거주자의 비율

	1990년	1995년	2000년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7.3	19.3	19.2
전문가	17.1	19.1	16.9
기술공 및 준전문가		18.5	19.4
사무 종사자	12.7	14.5	13.1
서비스 종사자	11.4	14.4	14.5
판매 종사자	17.0		10.6
농업, 임업 및 어업종사자	1.8	2.6	2.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	17.5	1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0	14.8
단순 노무 종사자		10.0	9.9
기타	27.4	62.5	42.5
전체	9.5	12.3	11.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년도

가치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하향취업이나 실업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아래 절에서 이를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3) 노동시장에 있어서 학력효과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충청북도에 있어서 직종별 전체 취업자수의 변화 추세와 대졸취업자수의 변화 추세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 상의 차이는 사회 전체의 직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직업구조의 변화와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력 자체의 학력 수준이 달라진데서 비롯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직종별 대졸취업자 변화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과연 충청북도 노동시장에 있어서 대졸구직자의 과잉공급, 학력효과와 하락, 과잉교육 혹은 학력인플레 현상의 존재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변이할당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⁷⁾ 변이할당분석은 일정기간 동안 한 부분의 실제 변화량(ΔD_{ij})을 크게 전체 성장효과(g_{ij}), 취업구조효과(m_{ij}) 그리고 학력간 경쟁효과(c_{ij}) 세 부분으로 구분함으로써 변화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전체 성장효과는 학력이나 직종과 상관없이 총 취업자 증가율이 반영된 성장효과를, 취업구조효과는 직종별 학력구성(비중)과 상관없이 직종 자체의 상대적인 성장률의 차이가 반영된 성장효과, 그리고 학력경쟁효과는 하나의 직종 안에서 특정 학력소지자의 상대적인 성장률의 차이가 반영된 성장효과를 각각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elta D_{ij} = E_{ij}(t) - E_{ij}(0) = g_{ij} + m_{ij} + c_{ij}$$

$$g_{ij} = E_{ij}(0) \cdot r_{..}$$

$$m_{ij} = E_{ij}(0) (r_i - r_{..})$$

$$c_{ij} = E_{ij}(0) (r_{ij} - r_i)$$

여기서, $E_{ij}(0)$: 기준연도 j 학력 i 직종의 고용인구
 $E_{ij}(t)$: 대비연도 j 학력 i 직종의 고용인구
 r_{ij} : 조사기간 동안 j 학력 i 직종의 취업자 증가율
 $r_{..}$: 조사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 증가율
 r_i : 조사기간 동안 i 직종의 전체 취업자 증가율

본 연구는 대학졸업자의 급속한 증가가 노동시장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주된 관심을 둔다. 따라서 학력경쟁효과가 각 직종별로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 라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식을 통해 학력경쟁효과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그 직종에 해당 학력소지자의 진출이 같은 기간동안 다른 학력소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 직종 내 학력구성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신장율의 상대적 우세, 이로 인한 동일 직종 내 학력구성의 변화는 특정 학력소지자가 그 직종으로의 취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는 직종의 고도화, 고급화 경향이다. 산업화에 따른 기술혁신, 직무내용의 고급화 등으로 말미암아 각 직종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같은 직종이더라도 과거보다 고급인력을 더 수요하게 된다. 예컨대 같은 사무직이라 할지라도 직무처리능력의 제고를 위해 업무의 전산화 등이 이루어지면 과거보다 보다 많은 고학력자를 수요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종의 학력구성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학력별 인력의 수급변화로 발생하는 학력의 직종간 상·하

방 이동(filtering up or down)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대졸자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과잉으로 이루어져 과거에는 고졸자의 직종이었던 곳에 대졸자가 하방 이동을 하는 경우, 즉 학력인플레로 인한 직종의 학력구성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노동력의 수급변화에 대하여 노동시장이 양적 조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력구성변화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각 학력소지자의 학력경쟁효과, 이로 인한 직종 내 학력구성의 변화는 크게 직무 고도화 요인과 수급조절을 위한 학력의 직종이동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기업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취업희망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는데 따르는 선별비용(screening cost)이 소요되므로 학력이 표상하는 외면적 직무능력을 선발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박세일, 1983: 27-28). 따라서 만일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소지한 인력 공급이 늘어났다면 고용주는 유능한 인력 확보가 용이하므로 직무에 소요되는 능력과 무관하게 고학력자를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직종 내 학력구성의 변화분은 학력의 직종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1990년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충청북도 전체 취업자수는 약 17.1%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각 학력별 취업자수는 중졸 이하 취업자수는 절대적인 감소를 하였으며, 고졸 취업자수, 전문대졸 취업자수, 대졸취업자수 그리고 대학원졸업 취업자수는 각각 약 50%, 234%, 87%, 308%의 두드러진 신장율을 보였다. 특히 신장율 측면에서 보면 고학력일수록 신장세가 더욱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전문대졸 취업자의 구성비는 3.1%에서 9%로, 대졸 취업자의 구성비는 8.2%에서 13.1%

로, 그리고 대학원졸 취업자의 구성비는 0.7%에서 2.5%로 각각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취업자의 고학력화 현상이 일어났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1990년대 충청북도 대졸취업자 변화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을 보면 1990년대 충청북도 대졸취업자 순증가 약 36.9천명 중 약 67%에 해당하는 24.8천명이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및 사무직종에 취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나머지 약 33%가 서비스·판매직, 농업 및 생산직의 하위 직종에 흡수되었다. 그런데 이들 하위직종에 있어서 대졸취업자의 학력경쟁효과는 양의 값을 가진다. 이는 이들 하위직종에 대졸취업자들이 다른 학력소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율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동안 대졸취업자의 급팽창, 이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일자리 공급의 상대적 부족으로 상당수 대졸취업자가 과거 낮은 학력소지자에 의해 충원되었던 이들 분야로 하향이동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대략 그 숫자는 약 8.7천명으로 이들 하위 직종에 흡수된 대졸취업자 12.1천명의 약 72% 그리고 전체 대졸취업자 순증가 36.9천명의 약 23.5%가 학력별 노동력 수급차로 발생한 직종 하향이동 취업자에 해당한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위직종 자체의 직무내용의 고급화 과정에서 생기는 대졸자 수요 증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크기를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동안 충청북도 내 대졸취업자 4~5인 중의 1인 정도는 대졸자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되어 하위직종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의 대졸취업자 구조 변화를 다른 지역노동시장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충청북도 대졸노동시장의 상대적 특성을 보다 분명하

표 3. 직업별 대졸취업자의 변화요인 분해
(단위 : 천명)

	실제 증감	전체성 장효과	취업구 조효과	학력경 쟁효과
충청북도				
행정관리직	6.6	0.3	6.1	0.2
전문기술직	12.0	3.3	22.0	-13.3
사무직	6.2	1.8	1.3	3.1
서비스, 판매직	6.0	1.0	0.7	4.3
농업, 임업	0.8	0.3	-0.9	1.4
생산직	4.2	0.6	0.5	3.1
기 타	1.1	0.0	0.2	0.8
합 계	36.9	7.3	30.0	-0.4
대전·충청남도				
행정관리직	7.6	0.8	13.5	-6.7
전문기술직	17.8	8.2	56.1	-46.5
사무직	3.6	5.3	2.8	-4.5
서비스, 판매직	3.3	2.6	2.6	-1.9
농업, 임업	0.0	0.8	-1.9	1.2
생산직	8.6	1.3	0.5	6.8
기 타	-0.7	0.5	0.5	-1.7
합 계	40.3	19.4	74.1	-53.3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행정관리직	128.7	24.6	141.1	-37.0
전문기술직	506.2	88.9	611.2	-193.9
사무직	-29.0	120.7	-125.7	-24.0
서비스, 판매직	10.2	58.8	-45.4	-3.2
농업, 임업	0.0	2.1	-4.2	2.2
생산직	48.6	21.7	-14.1	41.0
기 타	-4.5	3.6	-5.9	-2.1
합 계	660.3	320.4	556.9	-217.0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는 학력인플레이 혹은 과잉교육 현상의 상대적 정도를 가늠하게 해주며 나아가 이 지역의 대학진학자의 진학행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

대 충청북도, 대전·충청남도 그리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각 지역노동시장에 있어서 대졸취업자의 학력경쟁효과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농업과 생산직 두 하위직종에서 학력경쟁효과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따라서 세 지역 모두 대졸학력자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이 두 하위직종으로 대졸자들이 하향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종의 경우 충청북도의 학력경쟁효과는 다른 지역노동시장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역노동시장의 경우 이 두 직종에 있어서 대졸자의 학력경쟁효과는 (-)값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 직종에 있어서 대졸 학력은 적어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대졸자들의 취업 추세는 전체 노동시장에 있어서 학력구성의 변화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를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충청북도는 이 분야에 대한 대졸자들의 취업 신장율이 전체 노동시장에 있어서 학력구성의 변화 이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충청북도, 대전·충청남도 및 수도권의 대졸취업자의 증가율은 각각 86.3%, 41.5%, 57.4%인데 비해 전체 일자리의 증가율은 각각 17.1%, 20.0% 및 27.9%로 충청북도는 대졸취업자 증가율과 일자리 증가율 사이에 격차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⁸⁾ 따라서 1990년대 충청북도는 대전·충청남도, 수도권에 비해 학력인플레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하였고 그 결과 대졸취업자들의 하향이동이 여러 직업분야에서 전개되었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졸 취업자의 직종하향 이동 현상이 교육수요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가? 학력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같은

학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점차 하향 조정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향이동이 이루어지면, 하위직종 중에서도 비교적 유리한 직업군에서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를 대체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리하여 이 직업획득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 특히 고학력의 효과는 점차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학력효과가 증대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리한 직업군에 접근할 수 있는 상대적 기회가 저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지, 고학력자의 접근 기회 자체가 절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기회는 교육체계의 팽창에 따라 더욱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학력자가 유리한 직업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절대 규모는 줄면서 저학력자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인 기회의 격차는 유지된다는 것은 고학력자가 얻는 소득이나 직업획득 확률 자체는 줄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학력효과 자체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대한다는 의미를 띤다. 즉 교육수익률은 떨어질지언정 학력효과는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학력효과가 지속된다면 대학학력에 대한 사적 수요도 변함없거나 더 팽창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학력효과가 저하되지 않는다는, 첫째 학력간 층화 수준은 높지만 교육에 있어서 학력수준별로 상이한 직업적 특성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단순한 학력기준이 입직 단계에서 쉽게 활용되게 만드는 교육체제 내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둘째 학력위주의 임금 및 고용 관행, 학력에 대한 문화적 전통 등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교육수요를 낮추지 못하게 만드는 점도 지적해 볼 수 있다(장상수, 2001).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구조가 분단되어 있고 기업내부 노동시장이 발달해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서로 다른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집단들은 각기 다른 입직 과정, 승진

사다리 및 임금체계를 가지며 집단 간 혹은 집단 내 지위구분은 숙련의 수준이 아니라 성과 교육 수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단노동시장 하에서 개인이 유리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학력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4.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행동

1) 최종진학 대학의 지역분포

조사대상 고등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진학한 대학의 분포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도내, 대전·충청남도 그리고 수도권 순으로 진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 세 지역에 진학한 사례를 합치면, 조사대상 학생의 94.4%에 이른다. 진학한 구체적인 도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주(190개 사례), 서울(48개 사례), 대전(35개 사례), 충주(19개 사례), 천안과 수원(각 8개 사례) 등의 순으로 진학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한 대로 진학 대학을 선택할 때 거주지와 인접한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거주지에 인접한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은 더욱 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들이 충청북도 내의 대학으로 진학한 비율은 73%로 남학생의 5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고, 도내 대학을 포함하여 대전, 충청남도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비율도 여학생의 경우 약 89%로 남학생의 69%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비 부담이나 여학생들에 대한 보수적인 교육태도를 고려해볼 때 다른 조건에서 차이가 없다면 아무래도 통학이 가능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 거주지 인접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선호도가 높은 도시들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충청북도나 대전·충청남도로 진학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전적으로 거주지 인접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충청북도 내 대학으로 진학한 사례들 대부분이 청주 소재 대학으로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도내 지역으로 진학한 사례는 단 26건에 불과하다. 청주와 다른 충청북도 도시들 사이에 대학교육기회의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불균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충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전이나 천안 등에 비해 원주가 훨씬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만 조사대상 가운데 원주에 진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결국 조사대상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지리적 근접성 이외에 진학대학의 사회적 평판도나 대학이 소재하는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이 소재한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 조건이 대학선택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지적되어 왔다. 이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케이스

일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 핵심지역으로의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진학에 있어서 핵심지역으로의 진학이 가지는 장점은 대학 졸업 후 취업전망이 높다는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같은 학력의 소지자라 하더라도 최초 입직 단계를 어디에서 거쳤느냐에 따라 개인의 직업이력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외국의 경험적 연구사례에서도 밝혀지고 있다(Meusburger, 1997; Fielding, 1992; Savage, 1988; 川田力, 1993). 그래서 선진국에서조차 최초 입직 단계에 이루어진 공간적 이동이 향후 사회적 이동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이동성과 공간적 이동성의 유기적 연관관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만일 대학진학을 어디에 하느냐가 취업자와 취업분야를 결정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핵심지역이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다면, 대학진학단계에서 수도권 선호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더구나 대학의 역사가 길고 사회적 평판도 높은 대학도 서울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입시경쟁이라는 본질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를

표 4. 성별, 출신고등학교 소재지별 최종진학지역의 분포

(단위 : 명)

구 분	충북	대전	충남	서울	인천·경기	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기타	계	
남	소계	121	26	8	38	14	2	6	4	1	4	224
	청주	79	12	4	2	5	-	3	2	1	2	110
	충주	42	14	4	36	9	2	3	2	-	2	114
여	95	95	12	10	1	1	1	-	1	-	130	
합 계	216	35	20	48	15	3	7	4	2	4	354	

자료 : 필자 조사

다음으로 대학진학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나타났다.⁹⁾ 이점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충주지역 고등학교의 대학진학지역 분포이다. 출신고등학교 소재지에 진학한 사례는 단 10건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진학한 사례가 충청북도 도내 대학으로 진학을 한 사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공계열별로 진학대학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표 5 참조). 자료의 제약 관계로 충분한 설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전공의 직업특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2003학년도 충청북도 내 대학들의 계열별 입학정원 분포를 보면, 공학계열이 전체 정원의 약 3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계열(21%), 사범계열(13%), 인문계열(11%), 예체능계열(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 학생들의 전공계열별 진학대학분포에서 충청북도 내의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농학계열 진학자 중에 77%가 충청북도 내의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이 71%, 인문계열이 65%, 사범계열이 57%, 그리고 사회계열

과 예체능계열이 각각 53%로 나타나 전공별 도내 대학입학기회 정도와 실제 계열별 실제 대학진학지역의 분포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특히 의학계열을 비롯해서 사회계열과 사범계열, 예체능계열은 수도권 소재 대학 선택 비율이 전체 평균 17%보다 높은 23%에서 최고 4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충청북도 내 대학진학기회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진학 비율이 낮은 전공들은 직업적 특정성이 높아 졸업 후 활동기회가 제한된 충청북도 보다 다른 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¹⁰⁾ 교육당국은 이제까지 수도권과 대비하여 지방에 대해서도 각 전공분야별로 고른 대학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대학 및 학과의 증원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해보면 실제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은 지역 내 전공분야별 교육기회의 정도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Savage(1988)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적 이동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 5. 전공계열별 최종진학지역의 분포

(단위 : 명)

	충북	대전	충남	서울	인천·경기	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기타	계
인문계열	26	7	1	5	-	-	-	-	-	1	40
사회계열	57	10	11	23	2	-	1	1	1	1	107
사범계열	16	-	2	6	1	2	-	-	-	1	28
이학계열	20	6	1	5	1	-	1	-	-	-	34
공학계열	68	9	-	5	7	-	3	2	1	1	96
농학계열	20	-	2	2	-	-	2	-	-	-	26
의학계열	-	1	1	1	1	-	-	1	-	-	5
예체능계열	9	2	2	1	3	1	-	-	-	-	18
계	216	35	20	48	15	3	7	4	2	4	354

자료 : 필자 조사

전략은 자영(entrepreneurial strategies), 승진(organizational strategies), 전직(occupational strategies)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전략을 추구하던 사회적 이동을 할 기회는 핵심지역에 더 집중되어 있고, 특히 기업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분리 추세와 서비스 경제화로 인해 사회적 이동기회는 핵심지역으로 더욱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¹¹⁾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 집중 정도가 극단적이고 대학 역시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대학교육기회의 분산이 핵심지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고 볼 수 있다.

2) 복수대학 합격자의 대학선택 과정

최근 입시제도의 변화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러 개의 대학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 뒤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을 선택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된 학생들도 극히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복수지원을 하였고 또 조사대상 학생의 약 3분의 2 정도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가운데 소재 지역이 다른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약 60%에 이른다. 직업자격 획득의 창구로써 장래 소득과 계층 획득에 결정적인 대학교육인 만큼 지원단계에서 학생들은 고도의 의사결정을 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여러 곳의 대학에 합격을 한 후 최종적인 진학 결정을 하는 경우 더욱 고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분석을 한 사례들은 입학 후 진학포기를 한 사례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이력 형성에 중요한 단계를 거친 사례들이다. 이처럼 여러 개의 대안을 두고 고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학진학을 한 사례들이므로 이들의 의사결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행동에 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히 수험생들의 희망대학 자료를 근거로 대학진학행동을 연구한 것에 비해 보다 실제에 가까운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도 하겠다. 아래의 표 6와 표 7은 복수합격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복수합격자들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충북외-충북' 합격자 유형은 충청북도 이외 시도 지역과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각각 1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뒤 최종적으로 충청북도 소재 대학으로 진학을 한 경우를 지칭하며, '충북-충북외' 유형은 이와 반대되는 유형이다. '충북외-충북외' 유형은 충청북도 이외 서로 다른 두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그 중 한 곳으로 진학한 경우이다.

조사대상 학생들 가운데 복수합격자들의 최종 대학내용을 보면, 성별 지역별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먼저 복수 대학에 합격을 한 여학생들 중에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통학이 가능한 충청북도 내의 대학에 최종적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며, 특히 다른 시도에 소재한 대학에 합격하고도 충청북도 내의 대학으로 최종 진학을 한 비율 역시 남학생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후자 유형 가운데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에 합격하고도 거주지 대학으로 최종 지원 사례도 포함되어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이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면모가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성별 격차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열망에 있어서 직업획득이나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보다는 경제적 고려나 도덕적 고려를 더

표 6. 복수합격대학과 최종진학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복수합격자의 유형분포

(단위 : 명, %)

구 분	복수대학 합격자수	복수합격대학과 최종진학대학의 소재지(주)				
		출신학교 소재지	충북도내	충북외-충북	충북-충북외	충북외-충북외
남	100	5.7	12.0	36.7	19.0	26.6
청 주	100	10.6	13.6	53.0	10.6	19.7
충 주	100	2.2	10.9	25.0	25.0	37.0
여	100	16.2	10.8	48.7	17.6	6.8
계	100	9.1	11.6	40.5	18.5	20.3

주 : 복수합격대학과 진학대학의 소재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임. 충북외-충북은 복수합격대학의 소재지와 최종진학대학의 소재지를 각각 말함. 즉 충북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도 합격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충북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진학한 경우
 자료 : 필자 조사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의 접근과 사회적 이동 기회의 공간적 불균형, 중심-주변 격차가 대학진학행동의 이면에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또 다른 각도에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출신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진학 대학의 소재지 분포 그리고 복수합격대학의 대안을 두고 최종진학대학의 선택결정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충주의 사례 학생들 가운데 약 81%가 복수대학 합격을 하였고 이 복수합격자들 중에 충주 시내의 대학이나 충청북도 내의 복수대학에 합격한 사례는 청주의 같은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충청북도 경계를 넘어서 다른 시도에 복수 합격한 학생들 중에 충청북도 내의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도 청주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두 지역의 남학생 집단들의 수험성적 차이가 개입된 표집 오류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두 지역의 진학행동

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앞의 표 4에서 출신고등학교 소재지별 최종진학지역 분포 결과와 복수합격자들의 최종진학지역 선택을 함께 고찰해보면, 우리는 지방의 중심도시에서 벗어나 있는 도시의 고등학생들은 진학을 할 때 아예 충청북도 밖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점에서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방도시들은 점차 지방중심도시의 대학 취학권에서 벗어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결과는 1970년대 우리나라 지방중심도시의 도시세력권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의 취학권을 분석한 홍경희(1976; 1978)의 연구결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두 실증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에 있어서 도청소재지는 도내 진학자들의 일차적인 진학목적지였고 수도권은 2차 진학목적지인 것으로 드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매우 대조적이다. 그리고 충주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사례도 기대만큼 주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지방중심도시가 주변 지역에 대해 교육기회 측면에서 도시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인이 대학교육기회의 분산에 있

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주변 격차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대학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대졸 학력의 표면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진학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주요 대도시 쪽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비록 청주가 산업구조나 지역경제 규모 면에서 충주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교육을 우려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난 지방대졸자들을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여전히 취약한 고용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졸학력이 실질적으로 직업획득과 사회적 계층이동을 하는 창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심지역이나 성장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복수합격자 중에 도 경계를 넘나든 대학선택을 한 집단들이 최종진학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진학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표 7은 도 경계를 넘나드는 대학선택과정을 거친

두 집단들을 대상으로 전공계열 및 대학설립유형의 변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복수합격대학과 최종진학대학 사이에 전공계열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전공이 바뀐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복수합격대학과 최종진학대학이 각각 충청북도 이외에 소재하는 대학과 충청북도 내의 대학인 '충북외-충북' 합격자 유형에 비해 반대의 최종진학대학 결정을 거친 집단, 즉 '충북-충북외' 합격자 유형에서 전공계열이 바뀐 비율이 다소 높았다. 만일 알려진 바처럼 조사대상의 학생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과 전공 두 측면에서 하향지원의 경향이 있었다면, 하향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학이 충청북도 내의 대학인 경우가 다소 많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¹²⁾ 즉 충청북도 내 대학에서 비교적 합격이 용이한 전공학과에 하향지원을 한 뒤, 희망하는 다른 지역의 대학과 전공에 복수지원을 하고 가능하다면 후자의 대학과 전공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 경계를 넘나드는 대학선택과정을 거친 두 집단 사이에 대학유형을 바꾸면서 최종진학대학을 선정한 경우의 빈도를 살펴보자.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므로

표 7. 복수대학합격자의 대학선택 과정

구 분	계	전공계열 변동주 ¹⁾		대학유형 변동주 ²⁾			
		동일 계열	다른 계열	국공립-국공립	사립-사립	사립-국공립	국공립-사립
충북외-충북	94 100%	39 41.5%	55 58.5%	18 19.1%	36 38.3%	39 41.5%	1 1.1%
충북-충북외	43 100%	15 34.9%	28 65.1%	9 20.9%	16 37.2%	9 20.9%	9 20.9%

주 : 1) 전공선택에서 다른 전공이라 함은 복수합격대학과 최종진학대학의 전공계열이 다른 것을 의미함. 2) 대학설립유형선택에서 국공립-사립이란 복수합격대학과 최종진학대학의 설립유형이 각각 국공립과 사립이라는 것을 의미함.

자료 : 필자조사

복수합격을 한 대학이 사립대학이고 최종진학 대학이 국공립이라면 이는 교육비 부담이 고려된 대학선택과정이 개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복수 합격자 유형을 서로 비교해보면, 합격한 대학 모두 같은 유형인 경우는 두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유형이 바뀐 경우는 두 집단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복수합격대학과 최종진학대학이 각각 충청북도 이외에 소재하는 대학과 충청북도 내의 대학인 '충북외-충북' 합격자 유형의 경우 다른 복수합격 대학이 국공립이면서 최종진학대학이 사립대학인 경우는 단 한 사례에 불과하고 정반대의 대학선택과정을 거친 사례의 빈도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재지 기준으로 정반대의 최종진학대학 결정을 거친 집단, 즉 '충북-충북외' 합격자 유형의 그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는 결국 만일 핵심지역이나 주요 대도시로 진학이 가능하다면 생활비용과 학비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핵심지역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한번 대학교육기회의 팽창, 이에 따른 학력의 표면적 가치의 상대적 저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직업 획득이나 사회적 이동의 발판 역할을 하기 위해선 단순한 학력 이외 다른 자질기준과 개인의 접촉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과잉교육하에서 교육수요 행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전공분야에서 교육내용과 직업의 연결이 분명하지 않으며, 기업 내부시장의 발달로 개인의 장래 소득 및 직업지위의 결정에 입직 단계에 어떤 부분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에 하나가 진학대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업획득기회의 다양성 및 총량에 있어

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 노동시장 정보 자체가 국지적 범위에서 유포됨으로써 정보접촉기회 자체가 불리하고 나아가 조직적 전략 혹은 전직 전략 등 어떤 사회적 이동을 거치든 그 이동기회가 국지적 맥락에서 생성되고 배분되는 경향은 우리나라 이외에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사회적 평가조차 이러한 지역구조와 갈수록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진학단계에서 교육비 요인, 지방교육기회의 양과 내용에 상관없이 핵심지역으로 이탈하려는 교육수요 행태가 전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본 연구결과는 이를 입증해준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충청북도를 사례로 대학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서 나타나는 대학진학행동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지방에 있어서 대학교육기회확대가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육기회확대와 노동시장의 변화 양자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던 반면에, 교육기회확대로 발생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교육수요 행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최근에 들어 자주 언급되는 소위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졸 미취업 문제 이외에도 학생수급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교육수요 행태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의 상대적 부족은 시급히 보완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된

이후 충청북도의 대졸노동시장이 보여주는 구조적 특징과, 이를 배경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행동들의 특징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대학진학행동 분석을 위한 자료는 청주와 충주에 있는 3곳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2002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일부를 표본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본 연구로부터 통해 충청북도 노동시장에 있어서 과잉교육으로 인한 대졸취업자의 직종하향이동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1980년대 이후 충청북도의 대학교육기획의 급증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 있어서 대졸 학력자의 공급과잉으로, 대졸학력자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농업 관련 직종으로 직종하향이동 현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충청북도의 대졸취업자의 직종하향이동 현상은 수도권이나 인근의 대전·충청남도에 비해 직종하향이동 경향을 보여주는 직종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그 정도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졸 구직자는 대폭으로 늘어난 데 비해 충청북도는 산업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생산 혹은 루틴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대졸 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노동시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과잉교육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학력효과를 낮추고 따라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고용관행, 분단노동시장,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발달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상위 직종에 취업하거나 승진기회를 얻기 위한 자격요건으로서 학력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잉교육으로 인해 대졸구직자가 늘어나면 입직 단계에서 출신학교의 명망도, 지역, 전공, 경력 등 부가적 선발기준을 적용하는 등 선

발기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행태는 대학교육수요자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주변 지역을 벗어나 핵심지역으로 지향하는 경향은 바로 이를 반영하는 공간적 표징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학생들의 대학진학행동에도 이러한 점이 밝혀졌다.

우선 최종진학대학의 소재지 분포를 살펴보면, 거주지 인접성 이외에도 상위 중심지 계층으로의 지향 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도권권이 주요 진학목적지임이 확인되었고 충청북도와 인접한 대전·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으로의 진학은 극히 적었다. 또 같은 충청북도 대학이더라도 중심도시, 청주 이외의 지역에 있는 대학에의 진학비율이 극히 낮았다. 둘째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도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한 대학교육수요를 보여주는 공간적 표징이라고 하겠다. 즉 취업전망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도내 대학에 잔류하는 비율이 낮고, 특히 다른 시도의 대학에도 합격하고 충청북도내 대학으로 최종진학을 한 경우가 여학생 쪽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도를 단위로 하는 취학권이 약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출신고등학교 소재지의 중심지 계층별로 학생들의 대학진학목적지 분포의 차이가 이를 입증해준다. 즉 충주 학생들의 도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청주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도내 대학에 합격하고도 다른 시도의 대학으로 최종진학을 한 학생의 비율도 충주의 학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국 도청소재지이면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발달된 지역경제를 갖춘 청주가 대학세력권 측면에서는 중심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

한다. 대학교육기회는 확대되고 분산되는 한편, 과잉교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선발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업전망이 밝지 않는 도내 대학을 기피하려는 태도가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 단위 대학 취학권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잉교육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1970년대에는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도 단위 대학 취학권이 분명히 존재하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학교육기회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충청북도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대졸취업자의 직종하향이동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학진학행동에서 충청북도를 이탈하여 보다 상위 중심지로 또는 핵심지역으로 이탈하려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를 단위로 하는 취학권이 약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대학진학행동의 공간적 표징은 현재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지방대학의 위기, 지방의 인재유출, 중심-주변 격차를 잘 나타내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대졸학력자의 수급 불균형, 노동시장의 공간적 분단, 의사결정기능의 수도권 집중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대학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와 지역적 분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비단 정책당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대학도 함께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

- 1) 이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측은 개인신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등학교의

명예와도 관련된다고 생각하므로 자료 제공 자체를 기피하였다. 학교 명칭을 밝히지 않는다는 약속아래 자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이 기회를 빌어 정보를 제공해준 학교측과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 2) 상대임금을 조정은 노동조합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고, 기존 인력의 소득에도 영향을 주어 내부의 반발이 예상되며 기업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 3) 1995년 하반기의 대졸 취업자의 입직 경로를 보면, 연고자 소개에 의한 것이 44.3%, 공개채용에 의한 것이 42.5%, 학교소개나 추천에 의한 것이 9.4%,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한 것이 3.8% 이었다(장상수, 2001, 73). 대졸자의 취업이 사적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고 그만큼 개인의 접촉 잠재력 혹은 고용정보원への 접근성이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4) 유사한 맥락에서 이두휴(1993)는 채용방식이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기회를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가를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 5) 1975년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비율은 22%인데 비해 충청북도는 약 19%에 지나지 않았다. 이 상대적 비율은 1980년 이후 역전되어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85년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비율은 31.4%인데 비해 충청북도는 34.5%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1995년의 경우 각각 39%와 54.3%, 2002년의 경우 각각 47.8%와 68.5%로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자료,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6) 이것은 사업체 증가 추세와 관련이 있다. 총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르면 1991년도 충청북도 총 사업체는 약 64천 개이었지만 1995년에는 약 85천 개로 사업체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2000년의 총 사업체는 약 95천 개로 1990년대 후반기

에는 사업체 증가속도가 전반기 보다 많이 둔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7) 유사한 목적으로 분해법(decomposition method)이 사용되고 있다(박세일, 1983; 이두휴, 1993). 분해법은 각 직종별 취업자수 변화량을 취업구조 변화에 따른 부분, 학력구성 변화에 따른 부분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분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분해하는데 그 개념이나 수식이 변이할당분석과 비슷하다. 다만 계산결과는 변이할당분석의 결과만큼 실제 증감분이 각 요소로 정확하게 나뉘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그대로 이 방법에 적용해 본 결과, 적지 않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 분해법 대신에 같은 목적으로 변이할당분석을 사용한 연구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Clark(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 Denver 노동시장에 있어서 인종별 교육수준의 차이가 실제 노동시장에 있어서 직종별 취업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변이할당 분석을 사용하였다.
- 8) 이 두 증가율의 차이는 학력경쟁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수도권과 대전·충청남도도 일자리 증가 속도와 대졸취업자 증가 속도의 상대적 차이가 충청북도에 비해 훨씬 작았다. 특히 대졸취업자 증가 속도는 충청북도에 비해 이 두 지역에서 훨씬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취업자 증가속도에 비해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의 증가율이 매우 낮아 일자리 증가가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과 같은 상위직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었다. 그러므로 대전·충청남도, 수도권은 이 기간 동안 대졸자가 크게 늘어났으면서도 상위직종에서 이들을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에 충청북도는 노동시장 전체 수요에 비해 대졸자의 공급이 훨씬 커 대졸자의 직종하향이동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각 지역에 있어서 대졸취업자 및 직종별 취업자 증가율 (1990-2000년)

(단위 : %)

	충청북도	대전·충청남도	수도권
대졸취업자	86.3	41.5	57.4
행정관리직	361.4	375.0	187.7
전문기술직	131.9	156.8	219.3
사무직	29.4	30.4	-1.2
서비스, 판매직	30.1	39.7	6.4
농업, 임업	-29.4	-29.5	-29.6
생산직	32.2	27.8	9.8
전체 취업자수	17.1	20.0	27.9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 9) 본 연구의 논지에서 다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수능성적과 진학지역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를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양자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이점은 인재유출에 관한 논의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온 바이다(임정덕·성영재, 1997; 노국향, 1997; 이두휴, 1993).
- 10) 예를 들면, 예체능계열의 졸업생들은 자영을 하든 기업체에 취직을 하든 자신의 전공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시장이 성숙된 곳이라야만 한다. 더구나 이 전공은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범계열의 경우도 충청북도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기관이나 교육시장이 발달된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서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11) 각 전략은 각각 공간적 이동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띤다. 창업은 흔히 공간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창업은 안면이 있는 지방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 잠재고객, 잠재협력자와 인력 등의 국지적 자원들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조직 내 승진전략은 좀더 복잡하다. 조직의 공간적 구조에 따라 공간적 이동성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의 공간조직이 점차 다입지 구조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승진 경로를 거친 사회적 이동은 공간적 이동과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전직 전략은 공간적 이동의 상대적 성향이 일반적으로 높다.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간적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적 이동 성향은 전직 희망자의 기술을 수요하는 곳이 어느 정도 국지화되어 있는나에 따라 제한을 받을 것이다. 어떤 숙련노동자는 한 국가의 전역에 걸쳐 수요가 있겠지만, 보수 수준은 공간적으로 거의 무차별적인 조직 내 승진전략의 경우와 달리 전직 전략을 추구할 경우 보수 조건은 모든 곳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한정되어 전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만큼 전직 전략을 추구하는 유형 역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화되는 경향이 있다.

- 12) 물론 복수합격을 한 두 대학 사이에 최종선택은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두 대학간 상대적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적 평가는 최근에 와서 소재지역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소재지와 사회적 평가는 상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한만길, 1993).

참 고 문 헌

김영화 · 김병관,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교육학연구* 37(1), pp.156-172.
 김영화 · 유한구, 1994, "대학 진학수요 결정요인의 시계열적 분석," *교육학 연구* 31(1), pp.79-101.
 노국향, 1997, "대학지원양상에 기초한 한국 고등교육 인구의 분포 분석," *고등교육연구*9(1), pp.63-84.
 박세일, 1982, "고등교육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

향(I)," *한국개발연구 가을호*, pp.149-170.
 박세일, 1983, "고등교육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II)," *한국개발연구 봄호*, pp.26-52.
 박영한, 1995, "대학의 입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리학논총* 25, pp.1-18.
 박영한 · 조영국 · 안영진, 2001, "대학과 지역발전: 연 구동향과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6(4), pp.418-433.
 안영진, 2001,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 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pp.37-56.
 이두휴, 1993, *학력인플레이션과 입시경쟁양식의 지역 간 분화*,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표, 1994, "기업체 채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력의 기능분석," *교육학 연구* 32(4), pp.167-184.
 이재열, 1993, "임금의 결정 기제에 관한 조직론적 연구 -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7, pp.87-116.
 이해영, 1993, "대학학생정원 결정의 사회적 동인 분석," *교육학연구* 31(1), pp.77-97.
 임정덕 · 장영재,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20(1), pp.91-115.
 장상수, 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정태인, 1997, "한국기업의 내부노동시장: 경제사회학적 관점," *성균관대 사회과학* 36(1), pp.49-83.
 홍경희, 1976, "대학생 출신지를 지표로 한 한국 도시의 세력권," *경북대 교육연구지* 18, pp.43-56.
 홍경희, 1978, "각급학교 학생 유입권으로 본 경상북도 도시세력권의 제충구조," *경북대논문집* 25, pp.37-58.
 홍두승 · 김병조 · 조동기,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만길, 1993, "대학정원의 확대와 교육기회 분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31(1), pp.1-21.
 모이스블러, 1990, "教育地理學の課題と研究領域," *人文地理學研究* 14, pp.257-277.
 川田 力, 1992, "わが國における教育水準の地域格差," *人文地理* 44(1), pp.25-46.

- 川田 力, 1993, “長野縣佐久地における大學進學行動と大學新規卒業者の就職行動,” 地理學評論 66(1), pp.26-41.
- Clark, A. T., 1989, “Urban Schools and the Changing Metropolitan Labor Market,” *The Urban Review* 21(4), pp.227-250.
- Fassmann, H. and Meusbürger, P., 1997, *Arbeitsmarktgeographie - Erwerbstätigkeit und Arbeitslosigkeit im Raumlichen Kontext*, Stuttgart, Teubner (=박영한·이정록·안영진 옮김, 2002, 노동시장의 지리학, 서울, 한울).
- Fielding, A. J., 1992,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South East England as an Escalator Region,” *Regional Studies* 26(1), pp.1-15
- Lowe, J. C. and Viterio A., 1989, “Differential Spatial Attraction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Geography* 65(3), pp.208-215.
- Savage, M., 1988, “The missing link?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mobility and social mobili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9(4), pp.554-577.
- Wenzel, H. J., 1985, *Student auf dem Lande: Zur Problematik des Universitätsstandortes Vechta aus der Sicht der studentischen Nachfrage*, (= Studien zur Geographie, Materialien zur Schriftenreihe, Nr. 6.), Osnabrueck.

Over-education and University Selection Behavior of Local High School Leavers: A Case Study, Chungbuk, Korea*

Young-Kug Joh**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Hyupsung University
(Joh620@mail.hyupsung.ac.kr)*

Abstract : Since 1980's, the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have increased absolutely to the extent worrying of over-education. The over-education means that job-seekers having a bachelor degree flow into job market much more than necessary and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becomes more serious. Thes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can affect the university selection behaviors of high school graduates.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impacts of over-education in Chungbuk, a periphery region, Korea. As expected, many of college graduates flow down into jobs asking school years less than higher education. On the other hand, high school graduates have an tendency of choosing a college, especially a college in center region, other than universities in Chungbuk, to expect more stable and rewarding job in income and upward mobility after the graduation of higher education. As the result of this, a regional university district, which means most of students in the region enter college within region limit, is getting broken into more smaller districts, a kind of local district. It can be thought as a sign that the dominance of regional center is weakening and more cities in the region receive a direct affects from center region, not through regional center.

Key Words : Over-education, Local labor market, Under-employment, University selection behavior, Uneven develop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1-003-C00497)